

“노동절 공휴일 지정, 학교 현장 ‘모순’ 끝낼 전환점”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공휴일 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에
“노동의 가치 존중하는 사회·안정적인 교육 현장 함께 가야 할 방향” 강조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지속돼 온 운영상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노동절마다 적용 기준 차이가 혼선이 반복됐다. 교육공무직원은 휴무인 반면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은 정상 출근하는 구조로 인해 급식과 돌봄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고, 그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급식과 돌봄 학사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공휴일 지정 논의는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제도적 모순을 개선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사 일정 조정과 돌봄 공백 최소화, 학교 운영 연속성 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제도 변화에 대응해 학사일정 조정 절차의 표준화와 간소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 학교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가 행정에 쫓기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역할”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와 안정적인 교육 현장을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후속 입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에듀페이 지원 협력사업 기부금 기탁식이 열렸다

전북은행, 에듀페이 사랑 나눔... 전북교육청에 기부

비우처 사용액의 0.1%에 대한 2600만원... 학생 복지 등 취지

전북은행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장학금 2600만 원을 기부했다. 양 기관은 25일 전북교육청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에듀페이 지원 협력사업 기부금 기탁식을 열고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전북에듀페이카드 사용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생 복지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2,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내년까지 3년간 총 6,300만 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장의 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약 16만3,000명을 대상으로 총 238억 원 규모의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하며,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은호 부행장은 “전북에듀페이카드를 통해 학생 교육복지에 나눔으로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궁수 정책국장은 “전북에듀페이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교육과 나눔이 공존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부 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분단 현실, 내면적 서정으로 풀어내다

부안고 김병삼 교감, 신춘문에 삼문학상 시부문 신인문학상 수상

부안고등학교 김병삼 교감(사진)이 2026년 제16회 신춘문에 삼문학상 공모전 시부문 신인문학상에 당선됐다.

김 교감은 ‘볼 틈의 숲’, ‘무너지는 밤, 하나의 아침’, ‘이음줄’ 등 3편의 시를 출품해 문화적 기능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과학 교육을 전공한 교육자인 그는 문학과는 거리가 있는 이공학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비평을 겸허히 수용하며 자기 성찰과 창작을 이어온 점이 작품 세계의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시를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고자 해왔다. 김 교



감은 “한 편의 시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다리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시를 쓰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의 작품은 분단의 아픔과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과 시대적 고민이 시에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오랜 기간 무명 시인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창작을 이어온 노력 역시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단 관계자들은 그의 작품에 대해 “희려한 기교보다 진정성과 사유의 깊이가 돋보이며, 분단 현실을 내면적 서정으로 풀어낸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병삼 교감은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싱가포르 특수교육기관인 C.O.H와 협의회를 열고 한국과 싱가포르의 특수교육 정책 및 교육 현장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싱가포르 특수교육기관, 전북 특수교육현장 탐방

전북교육청, C.O.H와 협의회
특수교육 정책 운영 사례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해외 특수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싱가포르 특수교육기관인 C.O.H와 협의회를 열고 한국과 싱가포르의 특수교육 정책 및 교육 현장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1979년 설립된 C.O.H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 직원과 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 해외문화체험학습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다.

이날 C.O.H 소속 직원 10여 명은 전북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정책 설명을 듣고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동양초등학교와 전북장애인복지관, 동양재활원,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찾아 전북 특수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제이 전략기획팀장은 “싱가포르에서도 장애 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양국 정책을 비교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교류가 전북 특수교육 정책의 확장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정보공개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창조내대 5회의실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민원행정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보공개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민원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사용 방법과 제증명 발급 시 유의 사항, 정보공개 처리 절차,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방법, 고객 응대 친절 교육 등 실무 중심 내용이 다뤄졌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도민을 가장 먼저 만나며 교육청의 얼굴이 되어 주고 있는 민원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이 향상되길 기대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원대, 울산과학대 등과 K-컬처 상호협력 MOU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5일 울산과학대학교(부총장 김성철), 지구촌학교(이사장 김해성)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K-컬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 청소년의 잠재력을 발굴해 글로벌 K-컬처 인재로 육성하고, 대학과 교육 현장이 연계된 글로벌 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촌학교는 2011년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교육청 인가 학교로, 현재 25개국 약 300명의 초·중·고 학생이 재학 중인 다문화 교육 기관이다.

협약식에 앞서 호원대학교 정의봉 부총장은 재학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K-컬처의 비전'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글로벌 콘텐츠 제작 실습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권산=김만호 기자

도내 중3 학생들에게 세계적 수준 우주과학 체험 기회 제공

전북교육청, 2026 나사(NASA) 글로벌 캠프 운영...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 D.C 등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우주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나사 글로벌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NASA의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우주과학과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과학적 사고력과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캠프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간 미국 헛츠빌과 워싱턴 DC

에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우주인 훈련 과정과 우주선 발사 미션 로봇 제작, 항공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우주과학 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스미스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을 방문해 과학기술 현장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 16명으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공

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지수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탐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사고력과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고교-대학 연계 교육 협력 | 우석대, 전주술내고와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가 전주술내고등학교와 고교-대학 연계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24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총장실에서 열렸으며, 박노준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정진복 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동아리 활동 멘토링 지원,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특강 참여를 위한 인적 자원 지원, 교원 전문성 제고, 교육과정 연구 및 성과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교와 대학 간 교육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자원 공유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교수진과 학생들이 고교 현장에서 직접 참



우석대학교가 지난 24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총장실에서 전주술내고등학교와 고교-대학 연계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진복 교장도 “이번 협력을 통해 고교와 대학 간 교육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체계적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2026년도 재난업무 담당자 실무교육
연간 자체훈련 일정 등 공유, 재난안전체험도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전주교육지원청 꿈이공 공연장에서 2026년도 재난업무 담당자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14개 교육지원청 재난업무 담당자와 분기별 훈련 대상 학교 담당자 등 70명이 참석해 연간 자체훈련 일정과 훈련 개요를 공유하고,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재난 상황 교실형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안전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대상을 1분기 훈련 대상 학교뿐 아니라 2~4분기 훈련 학교 담당자까지 확대해 보다 체계적

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관과 학교의 원활한 훈련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재난 상황 관리와 비상 연락망 체계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